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ICBM에 핵탄두 탑재 시점, 레드라인”

“지금 북한이 점점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 북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 견뎌내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한 시점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강도높은 제재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여건 조성 되면 대북특사 파견 검토”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그런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당평·국민통합 인사 끝까지”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구상 중인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인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잡힌 인사, 당평인사, 통합적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드·보은 인사 지적을 일축했다.

◇“지방선거까지 개헌인지 불분명”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선공약 사안인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방안 마련과 정부 내 별도의 개헌특위 구성 등 2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부동산 강력 한 정책 준비돼”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에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과 관련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 또는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장악 방지 입법화 강구”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軍, 미사일 탄두중량 무제한 추진

국방부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미국 측은 탄두중량 무제한 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한돼 있는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안보에 좋지 않겠냐"며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측이 처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때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것 같다"며 "아무래도 안보상황이 그러다보니 (탄두중량 증대)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폭발력을 대폭 늘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자위권 확보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탄두중량 무제한 증대' 관련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에는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거리 1000km, 탄두 중량 1t을 미국 측이 요구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뉴시스

김태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100억 편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균제 달걀'에 대해서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오늘까지 마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메르스와 세월호 때 보여줬던 불투명한 정부의 행정, 이런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선 없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서만큼은 생산과 제조·유통, 소비까지 모든 부분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계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8월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감독 관리, 소상공인 영세중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대책을 꼼꼼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유성엽, ‘국가진로교육정책 포럼’ 오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오는 18일 금요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진로교육센터·한국진로교육학회·생애개발상담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 진로교육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진로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가·교사·학부모·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생애 전 주기 진로개발 측면에서 진로 교육 방향과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여야 국회의원, 교육계 주요 인사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되는 이 날 포럼에

는 진로교육학회 송병국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평생 진로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서고 생애개발상담학회 임은미 회장이 '초중등에서 성인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선희 좋은학교 비례대표회의 대표, 김윤기 경기 소재 교장, 송은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옥영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

수, 이지연 국가진로교육센터장, 임세라(슈마블러스 대표, 정연순 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본부장, 정원 동인천교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진로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인성, 도전의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미래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여야, 31일 김이수 현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여야는 17일 수석회동을 갖고 31일 분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31일 저녁 8시 분회를 갖기로 했다"며 "그날 김이수 현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